

한국 관련 기록의 집대성*

-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와
『은둔의 나라 한국』 -

이영미**

〈차 례〉

1. 머리말
2. 그리피스의 출생과 성장, 일본 생활
3. 『은둔의 나라 한국』의 집필 배경 및 과정
4. 『은둔의 나라 한국』의 기록사적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서양인들이 남긴 한국 관련 기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는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을 검토하였다. 이 책의 저자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는 메이지 일본 초기에 교사로 활동하던 중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귀국 후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1882년 10월 이 책을 완성하였다. 그는 동서양에서 수집한 수십 종의 저서, 논문,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 책을 썼는데, 일본인들이 쓴 역사서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이 쓰거나 번역한 글까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누구보다 많이 활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는 한국에 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체류 경험을 다룬 서구 문헌을 많이 참고하였다. 그가 가장 애용한 것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기록을 엮은 『한국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1874) 서론이었다. 이 글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으나 풍부한 정보를 실고 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필수적인 자료였다.

『은둔의 나라 한국』은 수백 년간 한국 밖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기록들을 메이지 일본에 경도된 미국인이 집대성한 것이었다. 이 책에는 많은 오류와 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의 권위는 한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좀더 생생하고 흥미로운 책을 다수 출간한 후에도 거의 약화되지 않았다. 그의 책은 초기 한국학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할 때 한국 역사서와 함께 그의 책을 참고하였으며, 할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와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은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주제를 의논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이 책은 1882년 이전의 한국 관련 기록과 19세기 말 초기 한국학 연구 사이에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 1882년 이전의 한국 관련 기록, 메이지 일본, 『한국 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1874), 재한서양인들의 한국학 연구

1. 머리말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는 20세기 전후 뉴욕 주와 보스턴에서 활동한 미국인으로, 25년간 개척교회와 회중교회에서 봉직한 목사이자 50권 이상의 책을 쓴 이름난 작가였다. 오늘날 그는 미국보다는 일본에서 기억되고 있다. 이는 그가 메이지 정부의 고용외국인으로서 1871~1874년 일본 학생들에게 근대 학문-주로 과학-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의 첫 임지 후쿠이에서는 2015년 가을 후쿠이시그리피스기념관(福井市グリフィス記念館)까지 열어 그를 기념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그는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몇 권의 저서가 있고 여러 가지 활동 내역도 있으나, 그가 한국과 관련하여 한 일 중 이 책을 쓴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¹⁾ 이 책은 1882

1) 그리피스가 발표한 한국 관계 저서로는 『은둔의 나라 한국』, 『한국의 안과 밖(Corea, Without and Within)』(1885),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외 한국의 설화(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1911), 『근대 한국의 개척자 아펜젤러의 전기(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1912), 『한국의 동화(Korean Fairy Tales)』(1922)가 있다. 그는 평생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1926년 겨울 일본에 갔다가 재한서양인들의 요청을 받고 이듬해 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년 가을 뉴욕과 런던에서 발간되어 단시간 내에 독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이후 30년간 꾸준히 증보 간행되면서 한국 방문을 앞둔 외교관과 선교사, 여행자를 위한 최고의 지침서로 기능하였다.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도 국내외에서 한국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Land of the Morning Calm)’는 이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²⁾

『은둔의 나라 한국』이 독창적인 저작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려진 대로이다. 그리피스는 서양인들이 합법적으로 내한할 수 없던 시기에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한국에 와 보지 않은 상태에서 1877~1880년 이 책의 대부분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재구성하였다.³⁾ 100종에 달하는 그의 문헌 목록은 시간적으로는 16세기 말 일본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공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것까지 아울렀다. 그러므로 이 책의 중요성은 수백 년간 한국 밖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관련 기록을 집대성하였다는 데 있다.⁴⁾

그러나 『은둔의 나라 한국』이 편찬물이었다고 해서 그리피스가 자신의 생

-
- 2) 그리피스는 『은둔의 나라 한국』 1장에서 국명 ‘조선(朝鮮)’이 ‘고요한 아침(Morning Calm)’이나 ‘상쾌한 아침(Fresh Morning)’을 뜻한다고 기록하였으나, 다른 장들에서는 ‘고요한 아침’ 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1874) 서론에 언급된 ‘평온한 아침(sérénité du matin)’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 3) 그렇기 때문에 그리피스는 자신을 ‘편집자(the compiler)’로 칭하였다.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pp. x~xii.
- 4) 이러한 점이 국내 학계에서 다루어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60년대 『은둔의 나라 한국』을 살펴본 학자들은 그리피스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 홍이섭은 그가 애착과 관심만으로 한국을 연구한 점을 높이 샀으나, 현장에 와 보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진은 그가 오페르트(Ernst J. Oppert, 1832~1903)의 글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지적하였다(홍이섭, 『歐美人의 韓國女性觀 : 19世紀 韓國關係 歐文 文獻을 中心으로 한』, 『亞細亞女性研究』 1, 1962; 김영진, 『國語方言研究의 史的 考察 : 方言學史를 爲한 試攷』, 『淸州大學校 論文集』 6-1, 1967). 이후 『은둔의 나라 한국』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형식, 『日帝初期 美國宣教師의 韓國觀 : 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을 中心으로』, 『主題研究』 14, 1987; 이태진, 『근대 한국은 과연 '은둔국'이었는가?』, 『韓國史論』 41·42, 1999; 김상민, 『개화·일제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에 나타난 한국 인식 양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수태, 『윌리엄 그리피스의 한국근대사 인식』, 『震檀學報』 110, 2010; 류황태, 『그리피스를 통해 본 한일 관계』, 『美國學論集』 42-3, 2010; 안종철,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일본과 한국 인식(1876~1910)』, 『일본연구』 15, 2011; 이영미, 『그리피스(1843~1928)의 한국 인식과 동아시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각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미완성이기는 했으나 ‘한국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맞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그리기 위하여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해석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의 한국관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그는 애당초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물음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1870년 연말부터 1874년 7월에 이르는 그의 일본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고,⁵⁾ 그의 일본 인식은 물론 한국 인식까지 엿볼 수 있는 『천황의 제국(The Mikado's Empire)』(1876)도 검토해야 한다.⁶⁾ 저서 집필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전까지, 한국과 관련하여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정보의 원천은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의 두 가지 고찰 즉, 『은둔의 나라 한국』이 그동안의 한국 관련 기록을 집대성한 것, 이 책이 저자의 일본 및 한국 인식을 반영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책을 분석하였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그리피스스의 출생과 성장, 일본에서의 삶을 살펴보았다. 그는 개신교 신학생이었지만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고용외국인으로서 일본에 갔으며, 일본사를 공부하고 일본의 정세를 관찰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은둔의 나라 한국』의 집필 배경과 과정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귀국 후 그의 첫 저서인 『천황의 제국』을 개관함으로써 그의 초창기 한국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은둔의 나라 한국』의 문헌 목록과 본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이 책의 기록사적 의미를 탐색하였다.⁷⁾

5) 그리피스스의 일본행과 일본 생활을 다룬 연구로는 Edward R. Beauchamp, *An American Teacher in Early Meiji Japan*. Honolulu, Hawaii: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6과 Robert A. Rosenstone, *Mirror in the Shrine: American Encounters with Meiji Japan*,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6) 그리피스스의 한국 인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천황의 제국』을 검토한 연구로는 정성화, 『월리암 그리피스스의 한국관』, 『서양의 한국: 이미지의 탄생과 변화』,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7) 그리피스스의 참고 문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정근식, 『그리피스스의 『은둔의 나라 한국』의 텍스트 형성 과정』,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눈빛, 2019.

2. 그리피스의 출생과 성장, 일본 생활

그리피스는 1870년 12월 29일 요코하마에 상륙하였다. 그 무렵 일본에는 도쿄, 요코하마, 나가사키, 효고, 오사카, 하코다테에 상당수의 서양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다양한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었다. 서양인 인구가 가장 많았던 요코하마의 경우 거주자 명부에 등재된 약 470명 중 공관 직원은 20여 명, 선교사는 5명, 고용외국인은 3명(기술자)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상인이 100여 명에 그들 밑에서 일하는 점원이 160여 명이였다.⁸⁾

그리피스의 일본행은 네덜란드개척교회 선교사 버벡(Guido H. F. Verbeck, 1830~1898)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선교사가 아니라 고용외국인으로서 오늘날의 후쿠이현 일대인 에치젠(越前)에 들어가 근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당시 일본에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 내지 위험이었다. 요코하마의 서양인 인구 구성에 나타나듯 서양인들이 일본에 간 것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젊은 신학생이 일반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극동에 간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비록 그 일자리가 무역상의 사환이나 보험 회사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피스가 일본에 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843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4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친가 쪽 선조들은 영국 출신이었다. 조부는 독립혁명 직후 10대 후반의 나이에 미국에 왔고, 조모는 식민지 시절 신대륙에 정착한 이름난 영국인들의 후손이었다. 한편 그의 외가는 독일인 조상들을 두었다. 외조부는 독일인 이민자의 후손, 외조모는 독일계 영국인이었으며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영국인과 독일인은 건국 초기부터 미국인들의 다수를 구성한 사람들이었고, 그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때부터 살아 온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첫 번째

8) 이 수치는 1869년 홍콩의 일간지 『데일리프레스(The Daily Press)』가 간행한 외국인 거주자 명단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The Hongkong Daily Press, *The Chronicle & Directory for China, Japan, & the Philippines for the Year 1869*, Hongkong: The Daily Press Office, 1869, pp. 54~135).

수도이자 손꼽히는 대도시였다. 그가 태어날 즈음 독일과 아일랜드 등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그는 전형적인 미국인, 토착적인 미국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그리피스의 집안이 대대로 바다와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이 가문의 남자들은 영국에서부터 대대로 뱃사람이었다. 조부는 서인도 제도를 오가며 무역에 종사하다가 30대 초반에 선장이 되었다.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되어 인도와 필리핀 등지를 항해하였으며, 한 번은 태평양 어떤 섬에 난파되었다가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결혼과 함께 석탄 상인으로 전업한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고, 1838년 필라델피아에서 개관한 중국 박물관이라든지 페리(Matthew C. Perry, 1794~1858) 함대가 일본 원정 때 사용한 서스케하나 호(USS Susquehanna)의 진수식에 그들을 데려갔다. 부친의 초기 교육은 장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아메리카와 필리핀을 여행하고 몇 년간 무역선을 타다가 해군에 입대하였다. 차남이었던 그리피스는 귀금속 상사에 들어가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았으나 1870년 9월 일본에 가기 위하여 가족을 설득하는 입장이 되었다.⁹⁾

그리피스가 일본에 간 데는 그의 모교 럿거스대학(Rutgers College)이 연관이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 대학은 1766년 네덜란드개척교회가 세운 퀸스칼리지(Queen's College)의 후신으로, 그의 양친이 그를 낳기 전 몇 년간 살았던 뉴저지 주 브런즈윅에 있었다. 장로교 신자였던 그가 네덜란드개척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노예제 찬반 논쟁으로 교회마저 분열되던 때, 떠오르던 젊은 설교자이자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탈메이지(Thomas D. Talmage, 1832~1902)의 제2독립교회로 옮기면서부터였다. 그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탈메이지의 영향이었다. 그는 1863년 여름 짧게나마 남북전쟁에 참

9) Ebenezer Mack Treman and Murray E. Poole, *The History of the Treman, Tremaine, Truman Family in America* Vol. 4, Ithaca, New York : Press of the Ithaca Democrat, 1901, pp.1510~1528; William Elliot Griffis, *China's Story in Myth, Legend, Art, and Annals*, Boston and New York : Houghton Mifflin Company, 1911, p. vii.

전하였으며, 전역 후 개인 교사 밑에서 입시를 준비한 끝에 럽거스대학 고전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어학, 철학, 역사학 뿐 아니라 수학, 천문학, 화학, 물리학, 식물학 등 과학부 강좌도 다수 수강하였다.¹⁰⁾ 이는 일본행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에치젠 번주가 원한 교사는 “미국의 원칙에 입각한 과학 학교를 세우고 자연과학을 가르칠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다.¹¹⁾

그리피스를 일본으로 부른 베크은 1859년 나가사키에 상륙한 이래 훗날 근대 일본의 주축이 될 소년들을 교육한 인물이었다.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후 그는 고용외국인이자 정부의 조언자로서 일본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주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소속되어 있던 네덜란드개척교회 해외선교부는 그들이 갈 학교로서 자기 교단과 관련이 있는 럽거스대학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막부 말기의 사상가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의 두 조카를 필두로 수십 명의 일본인이 럽거스대학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1868년 초여름 히고 출신의 두 학생 이세와 누마가와가 미국에 도착하였다. 사쓰마와 에치젠 번주의 심복들과 다른 지역 번주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었다. 나는 이 성실한 젊은이들이 미국 학생들만큼이나 좋은 가정 교육을 받고 예의와 지각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기뻐다. 그들 중 일부는 2년간, 일부는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지도를 받았다. 브런즈윅에서 만난 나의 친구와 제자로는 주미일본공사 요시다 기요나리, 샌프란시스코주재일본부영사 다카기 사부로, 뉴욕주재일본영사 도미타 테츠노스케, 제국대학 교장 하타케야마 요시나리, 해군 대령 마쓰마라 준조,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의 두 아들, 사쓰마 시마즈 가문의 젊은 귀족 두 명이 있다.¹²⁾

10) 그리피스가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였다는 것은 오래된 오류이다. 그가 공저자로 참여한 1869년도 졸업생 연보에 따르면 그는 고전부(Classical Section) 학생으로서 문학사 학위(B. A.)를 받았다. 이 연보에는 고전부 졸업생 14명과 비졸업생 8명, 과학부(Scientific Section) 졸업생 9명과 비졸업생 11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William Elliot Griffis, George Warne Labaw & John Hart, *Class of 1869, Rutgers College, History to 1916*, Ithaca, New York: The Cayuga Press, 1916, pp. 6~8).

11) Edward R. Beauchamp, op. cit., p. 22.

12)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New York: Harper & Brothers, 1876, p. 8. 인용문 첫머리의 1868년은 오키이다. 요코이의 조카들이 미국으로 떠난 것은 1866년 6월경이었다.

그리피스가 선택된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미국에 온 일본 유학생들을 최장 2년간 지도한 경력자였다. 인용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그가 일본에 가기로 결정하는 데 적잖은 동력이 되었다.

그밖에 제2대 주일미국공사의 아들 프루인(Robert C. Pruyn, 1847~1934)과의 친분,¹³⁾ 결혼 상대로 여겼던 여성과의 결별도 그리피스의 도일을 촉진 하였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가 받게 될 경제적 보상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고용외국인들의 보수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베크의 말에 따르면 독신 남성이 일본에서 1년간 사는 데 필요한 돈은 800달러였지만, 메이지 정부는 그리피스에게 그가 거주할 집과 타고 다닐 말 한 필 외에도 연봉 2,4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2,400달러는 거금은 아니었으나 뉴욕에서 월 100달러를 받고 있던 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였다.¹⁴⁾

그리피스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해야 했는데 그와 같은 고등 교육은 그 자체로 상당한 특권이었다.¹⁵⁾ 럿거스대학은 뉴잉글랜드의 상류층 자제가 입학할 만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가 가까게 지낸 친구 프루인과 클락(Edward W. Clark, 1849~1907)의 경우 전자는 일본 공사를 역임한 법률가의 아들, 후자는 명망 있는 목사의 아들이었다. 반면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도 신경을 써야 했다.¹⁶⁾ 신비한 극동 국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

13) 1867년 럿거스대학 고전부에 입학한 프루인은 부친 덕분에 막부 말기 일본을 풍부하게 경험한 인물로, 가까운 친구 그리피스에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일본행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William Elliot Griffis, George Warne Labaw & John Hart, op. cit., p. 11).

14) Edward R. Beauchamp, op. cit., p. 23; Robert A. Rosenstone, op. cit., p. 51. 당시 그리피스는 신학교 첫 해를 마치고 1870년 6월부터 뉴욕의 한 감리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15) 1870년 약 4,000만 미국 인구 중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사 9,371명, 석사 0명, 박사 1명이었다(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Part 1, Washington : U. S. Dep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1975, p. 386).

16) 럿거스대학의 학비는 1년에 80달러, 숙박비는 15달러였다. 처음에 그리피스는 고향 교회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대부분을 충당하였으나, 2학년 때부터는 럿거스대학의 입시 교육 기관에서 주 14시간씩 강의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아야 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간 후 직면한 재정난과 박탈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Robert A. Rosenstone, op. cit., pp. 46~50.

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일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그에게 연 2,400달러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그리피스는 도쿄에서 버벡을 만나 그의 집에서 몇 주간 머무른 후, 1871년 3월 4일 후쿠이에 도착하여 번교 메이신칸(明心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후쿠이에서 산 시간은 11개월이 못 되었다. 그는 이듬해 초 도쿄대학의 전신 다이가쿠난코(大學南校) - 1873년 가이세이학교(開成學校)로 개칭 - 로 전근하여 가르치기를 계속하였다. 교사로서의 생활은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시즈오카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클락을 일본으로 부른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당시 클락은 제네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1871년 가을 일본에 들어가 시즈오카학문소와 가이세이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으며, 4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목사가 되었다.¹⁷⁾

클락이 귀국 후 쓴 책에서 밝힌 대로 일본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이었다. 시즈오카를 떠나 가이세이학교로 오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는 총명한 학생들과 헤어지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도쿄에 가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는 점을 생각해 냈다. 시즈오카에서의 생활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유배(exile)”였다.¹⁸⁾ 그리피스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였는지도 모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는 후쿠이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분열되었고, 도쿄로 전근한 후에는 독신 생활이 길어진 만큼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도쿄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 세 누이 중 누구라도 일본에 올 수 없는지 물었다. 그의 구조 요청에 응한 것은 큰누이 마거릿(Margaret C. Griffis, 1838~1913)이었다. 그녀는 1872년 8월 일본에 도착하였고 그와 함께 지내며 도쿄여학교 교사로서 일하였다.¹⁹⁾

17) William Elliot Griffis, George Warne Labaw & John Hart, op. cit., pp. 15~16.

18) E. Warren Clark, *Life and Adventure in Japan*, New York : American Tract Society, 1878, pp. 128~131.

19) Robert A. Rosenstone, op. cit., pp. 103 & 189. 근대 일본의 선구적 교사로서의 마거릿에 관한 연구로는 確井知鶴子, 『Biography of Margaret C. Griffis : A Woman Teacher Employed by the

안정기에 접어든 후 그리피스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오가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특이점은 그가 학교와 교회, 일반적인 사교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이다. 그는 1872년 10월 8일 요코하마에서 창립된 일본아시아협회(Asiatic Society of Japan)의 일원이었다. 일본아시아협회는 학자들의 모임보다는 학구적인 신사들의 모임을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새토(Ernest M. Satow, 1843~1929), 애스턴(William G. Aston, 1841~1911), 체임벌린(Basil Hall Chamberlain, 1850~1935), 그리고 헵번(James C. Hepburn, 1815~1911)까지 19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일본 연구자들의 활동 무대였다. 그는 초창기부터 이 모임에 나가 일본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또한 『에도의 도로와 도로명(Streets and Street Names in Yedo)』, 『일본 아동들의 놀이와 운동(Games and Sports of Japanese Children)』 같은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²⁰⁾ 그가 몸담은 또 다른 모임으로 메이로쿠샤(明六社)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메이로쿠샤는 1874년 2월 1일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근대 일본 최초의 학술 단체였다.

내게 메이로쿠샤라는 명예로운 단체의 회원 자격을 부여한 이들에게 최고의 감사를 드린다. 저술가들과 개혁가들로 이루어진 이 클럽은 후쿠자와 유키치, 모리 아리노리, 나카무라 마사나오, 가토 히로유키, 니시 슈, 미쓰쿠리 형제 슈헤이와 린쇼, 우치다 마사오, 하타케야마 요시나리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²¹⁾

아침에는 바쁘게 짐을 썼다. 정오에 이와쿠라의 집에 가서 머리, 그릭스비, 클락 교수, 베크, 아사히, 하타케야마 박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이와쿠라는 창백하

Early Meiji Government』, 『比較教育学研究』 18, 1992.

20) Asiatic Society of Japan, *Constitution and By-Laws: List of Members, List of Exchanges, List of Thirty-Year Subscribers, and Catalogue of Transactions*, Yokohama, Japan: The Fukuin Printing Co., 1911, p. 217.

21)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p. 10. 니시 슈는 니시 아마네(西岡, 1829~1897)를 가리킨다.

고 몸이 좋지 않았다. 오후 5시에 메이로쿠샤를 만나 토론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오쿠보의 집에 몇 분 있었다. 일몰이 아름다웠다. 그 후 가츠의 집에 가서 밤 10시 까지 역사 이야기를 나눴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새벽 1시까지 바꿨다.²²⁾

『천황의 제국』 서문의 일부인 첫 번째 인용문은 그가 메이로쿠샤의 일원, 적어도 비공식 회원으로서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들과 교류하였음을 알려 준다. 그들 중 모리와 후쿠자와는 그가 첫 임지 후쿠이에 가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1874년 7월 16일에 작성된 그의 일기 전문인데, 그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1830~1878), 가츠 가이슈(勝海舟, 1823~1899) 등 메이지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도 가까운 관계였음을 알려 준다. 그는 이들과 함께 글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 일본인들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그의 일본관은 그가 일본아시아협회에서 만난 서양인들과 일본 근대화의 지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리피스는 1874년 7월 18일 누이 마저릿과 함께 일본을 떠났다. 문부성과의 계약 문제 때문에 가이세이학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원한다면 교토나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²³⁾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덜 만족스러운 일을 하느니 타국 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편을 선택하였다. 그가 세운 새로운 삶의 계획에는 학업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일본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쓰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2) 藏原三雪, 『The Griffis' Journal of Tokyo Years (1873/4/1~1874/9/17)』, 『武藏丘短期大学紀要』 13, 2006, 56쪽.

23) 그리피스는 1873년 가을 교토대학 화학과 교수직, 이듬해 5월에는 홋카이도 개척사의 외국인 교문 케프론(Horace Capron, 1804~1885)의 비서직 제의를 받았다(이영미, 앞의 글, 79쪽).

3. 『은둔의 나라 한국』의 집필 배경 및 과정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리피스는 신학생 신분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가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향과 모교를 떠나 뉴욕에 정착하고 유니언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일본 내륙 지방에서 살아 본 최초의 미국인’으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강연 일정을 소화하였다. 한편 그는 일본을 주제로 집필 작업에 착수한 결과, 1876년 600쪽이 훌쩍 넘는 『천황의 제국』을 발표하여 목사가 되기 전에 작가의 경력을 시작하였다.²⁴⁾

[표-1] 『천황의 제국』 목차

권	장	제목	권	장	제목
1	1	배경	1	24	히테요시의 사업-한국 침략
	2	원주민		25	기독교와 외국인
	3	사료		26	에도 시대를 연 이에야스
	4	일본의 신화		27	이중 정부와 봉건제의 완성
	5	신화 시대의 황혼기		28	최근의 혁명들
	6	문명을 가르친 스진 천황	2	1	일본과의 첫 만남
	7	간토 지방을 정복한 아마토다케루		2	말 타고 도카이도를 달리다
	8	대륙 문명의 도입		3	도쿄(동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9	고대인들의 생활		4	이교 사원에서 보고 들은 것
	10	고대의 종교		5	수도에 대한 연구
	11	천황과 황가		6	신일본의 사람들 속에서
	12	군인 통치의 시작		7	일본의 심장부에서
	13	요리토모 가와 미나모토 가		8	다이묘의 연회-나의 학생들
	14	이중 정부 체제의 수립		9	일본 가옥에서의 삶
	15	호조 가의 흥망성쇠		10	어린이들의 놀이와 운동
	16	일본의 불교		11	가정의 풍습과 미신

24) 『천황의 제국』은 그리피스가 발표한 수십 권의 책 중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팔린 책이다. 그는 초판 2,500권이 수개월 만에 매진되자 이듬해 초 서문만 덧붙인 2판을 내놓았고, 이후 개정과 증보를 거듭하여 1913년 초 750쪽이 넘는 마지막 개정증보판(12판)을 발간하였다.

17	몽골인들의 일본 침략	12	일본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
18	일시적 천황제	13	민간에 알려진 전승과 설화
19	국화들의 전쟁	14	일본의 속담
20	아시카가 시대	15	봉건제의 마지막 해
21	중세인들의 생활	16	걸어서 일본 속으로
22	봉건제의 성장과 봉건적 풍습	17	여성의 지위
23	불교를 박해한 노부나가	18	신일본

[표-1]이 보여 주듯이 『천황의 제국』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신화 시대부터 이와쿠라 사절단의 미국 방문에 이르는 일본의 역사를 28개 장, 311쪽으로 다루었고, 제2권은 저자의 일본 경험, 관찰, 연구를 18개 장, 254쪽으로 다루었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은 역사책이었다. 그리피스는 2년 후 친구 클락이 그랬던 것처럼 읽기 쉽고 흥미로운 책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시간과 지면을 들여 일본 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²⁵⁾ 그 결과 이 책은 일본에 대한 지식이 극히 빈약하던 미국에서 전문적인 서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는 단순히 일본에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일본 전문가 내지 연구자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새토, 애스턴, 체임벌린, 헵번 등 앞에서 언급한 일본 연구자들은 모두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문 문헌을 읽을 수 있거나 최소한 상당한 일본어 능력을 갖추었다. 반면 그리피스는 일본에서 고작 3년 반 살았고 일본어는 회화 정도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본에서 활동한 서양인들이 서양어로 남긴 자료를 선호하였으나, 일본의 역사를 간략하더라도 통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 사료에도 접근하였다. 『천황의 제국』을 보면 그가 『古事記』와 『日本書紀』를 참고하여 고대사 부분을 집필하였음을 알 수

25) 1868년 「크롬웰과 찰스 1세의 관계」라는 논문으로 수상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역사는 대학 시절부터 그리피스의 관심 분야였다. 그는 전문적인 역사가는 아니었으나 평생에 걸쳐 많은 역사책을 남겼고, 뉴욕 주 이타카에서는 드윌트역사학회(Dewitt Historical Society)를 설립하기도 했다(Edward R. Beauchamp, op. cit., p. 13; William Elliot Griffis, George Warne Labaw & John Hart, op. cit., p. 7).

있는데, 당시는 두 문헌이 번역되기 전이었으므로 일본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읽은 것 같다.²⁶⁾ 한편 그는 12장부터 시작되는 막부 시대의 역사를 라이 산요(賴山陽, 1780~1832)의 유명한 역사서 『日本外史』(1827)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앞부분은 1872~1874년 새도가 일간지 『재팬 메일(The Japan Mail)』에 번역 게재한 것을 참고하였으며, 뒷부분은 번역본이 없었으므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²⁷⁾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천황제 국가의 자기인식을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 외에도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담고 있었다. 그리피스도 일본 역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를 배워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서양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초대 진무(神武) 천황을 신화 속의 인물로 받아들였고, 초기 천황들에 대한 기사를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다들 지나치게 장수하고 수십 년씩 제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기록들이 다소 과장되었을지언정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였으며, 10대 스진(崇神) 천황과 12대 천황의 아들 아마토다케루(倭建命), 진구(神功) 황후를 실제 인물로 보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스진 천황 치세에 한국 사신이 선물을 들고 일본에 왔다거나 서기 203년 진구 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급습하였다는 내용을 실었고, 왕인(王仁)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문자와 종교, 문명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는 내용까지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한국이 고대부터 일본과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게 문명을 가르쳐 준 좋은 이웃이었다고 주장하였다.²⁸⁾

한국은 9장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임진왜란을 다룬 24장에서 재등장하였다. 그리피스는 『일본외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도요토미 히데요시

26) 『고사기』는 1882년 체임벌린, 『일본서기』는 1896년 에스턴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그리피스는 서양 유학 경험이 있는 일본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들에 접근하였으며, 천황의 신성(神性)이나 『고사기』 기록의 신빙성을 믿는지 그들에게 물어 보기도 했다(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p. 59).

27)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xiii.

28)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pp. 60~63 & 75~83. 역대 일본 천황 중 누구부터를 실제 인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스진 천황, 15대 오진(應神) 천황, 16대 닌토쿠(仁德) 천황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들의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제위 연대는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豊臣秀吉)의 대륙 침략 계획을 “터무니없는 꿈”이었다고 일갈하고, 이 전쟁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한국 정복은 일본에게 아무 명에도 남기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끝났다.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벌어진 잔인무도한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히데요시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며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중략). 일본군은 각자의 고향을 황무지로 만들고 한국인들의 땅을 불필요하게 유린하였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자유인 신분도 빼앗았다. 가련한 한국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상들에게 자신을 저당 잡히거나 팔기도 했다. 양측의 엄청난 희생은 모두 한 사람의 야망 때문이었음이 틀림없다.²⁹⁾

이렇듯 일본의 조선 공격을 강력하게 비판한 후, 그는 “일본의 어떤 무리는 3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들이 최근까지도 “한국으로!”를 외쳤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복이라는 문제를 놓고 분열되었을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이 일본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한파와 사절단파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정한에 있지 않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정한파가 처음부터 정한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사절단파가 줄곧 정한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 등의 사절단파는 1869~1870년 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족을 전장에 내보내 소모시키고자 정한론을 제기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족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는 기도가 정한을 주장하던 당시에는 내치가 더 중요하다며 반대하였으나, 사족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자 그들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로서 정한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³⁰⁾

1870년이 끝날 무렵 일본에 상륙한 외국인 관찰자가 이상의 사태를 전부

29)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p. 244.

30) 이노우에 키요시 저, 차광수 역, 『일본인이 쓴 일본의 역사』 (하), 대광서림, 1995, 92~95쪽.

다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가깝게 지낸 사람들은 거의 다 사절단 파였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사절단파는 한국을 공격하거나 지배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은 훗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³¹⁾ 그는 정한론에 대해서는 진구 황후의 한국 원정이나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정복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³²⁾ 이 논리에 따르면 일본은 특유의 호전성을 가지고 과거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정복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사절단파가 정한론을 물리친 이상 앞으로는 절대 한국을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환골탈태한 ‘신일본(New Japan)’의 임무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피스스는 일본이 이 임무에 성공하였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한국 사태는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 1875년 모리 아리노리는 베이징에 갔다. 구로다 기요타키는 군함을 이끌고 한국 바다에 진입하였다. 성공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인내심과 기술, 그리고 요령이었다. 1876년 2월 27일 일본은 한국과 평화, 친선, 통상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본은 지구상의 마지막 은둔국을 평화롭게 개방시켰다.³³⁾

그는 불법 침입, 도발과 무력 행위, 강요와 협박의 연속이었던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과정을 “인내심과 기술, 그리고 요령”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이

31) 그리피스스는 러일전쟁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향한 일본의 야망이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1910년 10월 『북아메리카 리뷰(The North American Review)』에 게재한 글에서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한국인에게 일본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실험”으로 정의하고, 일본인들이 과거 정한론파를 진압한 이래 얼마나 한국을 위하여 봉사해 왔는가를 나열하며 그들의 군사적 행위를 미화하였다(이영미, 앞의 글, 186~191쪽).

32)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p. 79.

33) Ibid., p. 576.

는 그가 맹목적으로 일본을 두둔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의 방법이 미일화친조약 체결 당시 미국이 일본에 썼던 방식을 모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일화친조약 역시 강요와 협박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페리는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대신 7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공손하고 사려 깊으면서도 확고한 인품을 어필함으로써 조약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평화와 선의”를 보여 줌으로써 생취한 “유혈 사태 없는 승리”이자 처음부터 공격해 버리는 유럽 국가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³⁴⁾ 신일본은 바로 미국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말 그대로 새로운 일본임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그리피스는 1870년대 초의 일본 생활과 『천황의 제국』 집필을 통하여 향후 수십 년간 적잖은 서양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일본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 담론의 결론은 일본이 근대화를 거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고, 한국은 일본인들의 민족성과 인종적 기원, 신도(神道), 천황제와 함께 담론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³⁵⁾ 그는 일본이 예전에는 자신에게 선진 문명을 전해 준 착한 이웃 한국을 괴롭혔으나, 이제는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한국을 평화롭게 개방시킴으로써 한국의 친구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놀라운 변신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책에 등장하였다. 한국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일본에서부터 생겨났고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34)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pp. 347~348. 그리피스는 페리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 1887년 그의 전기 『매튜 캘브레이스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를 출간하기도 했다.

35) 그리피스가 형성한 일본 담론의 내용은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자세히 다루기 어렵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일본 근대화에 대한 서양인들-주로 미국인과 영국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천황과 일본인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훗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의 후손이고 아이누는 본래 인도에서 기원한 백인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되었으며, 일본의 성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1907년작 『일본 민족의 진화(The Japanese Nation in Evolution)』에서 정점을 찍었다.

4. 『은둔의 나라 한국』의 기록사적 의미

그리피스는 『천황의 제국』을 발표한 이듬해 『은둔의 나라 한국』 집필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1877~1880년 이 책의 대부분을 썼고 바로 발간할 수도 있었으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위하여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1~1895)가 파견된 때였으므로 출판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원고 뒷부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을 서술하는 한편 슈펠트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을 덧붙였고, 얼마 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일본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1882년 10월 2일 일간지 『뉴욕 트리뷴(The New York Tribune)』에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에 관한 요코하마발 기사가 게재되자, 그는 이 내용으로서 본문을 갈음하고 서문을 써서 책을 완성하였다.³⁶⁾

그리피스가 『은둔의 나라 한국』을 집필한 때는 서양인들의 합법적인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던 시기였다. 방문이 가능하였다 할지라도 과연 그가 한국에 왔을지는 모를 일이다. 방문이 가능해진 다음에도 한국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망 1년 전인 1927년 봄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또한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1840~1931) 등의 초청으로 일본에 갔다가 재한서양인들의 부탁을 들어 준 것에 불과하였다.³⁷⁾ 어쨌든 그는 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서양의 한국 관련 자료를 모아가다가 이 책을 준비하였으며, 각지에서 수백 년간 생산된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이 책을 통하여 집약되어 수십 년 동안 전파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참고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가 이 책을 쓰기 전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가

36) 그리피스는 『천황의 제국』을 발표할 때에도 출판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천황의 제국』 서문이 작성된 1876년 5월 10일은 미국에 일본 열풍을 몰고 온 필라델피아만국박람회가 시작될 날이었다. 미국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만국박람회와 자포니즘(Japonisme)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조은영, 『미국 만국박람회에서의 일본: 일본 신화 만들기와 문화 정책』, 『미술사학보』 18, 2002.

37) 이태진, 앞의 글, 726~727쪽. 그리피스의 내한과 『찬란한 아침의 나라 한국(Korea, the Land of Morning Splendor)』에 관해서는 이영미, 앞의 글, 234~247쪽.

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피스는 『은둔의 나라 한국』 서두에 저서와 논문, 보고서와 외교 문서, 편지와 신문에 이르는 99개 항목의 자료를 수록하고, 자신의 글 7편을 제외한 92개 항목을 많은 도움을 받은 문헌(41개), 약간 도움을 받은 문헌(34개), 참고하지 않은 문헌(17개)으로 구분하였다. 많은 도움을 받은 문헌과 약간 도움을 받은 문헌의 경계가 모호하여 아울러 살펴보면, 16세기 말부터 1882년 사이에 서양인들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쓴 자료가 75개 중 54개를 차지하였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 와 보지 못한 저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있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서,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만주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ohn Ross, 1842~1915)의 저서 『한국의 역사(History of Corea)』(1879)를 들 수 있다.

54개 서양 자료 중 길건 짧건 한국 경험을 담은 것으로는 네덜란드인 하멜(Hendrik Hamel, 1630~1692)의 한국 체류 기록, 탐사 또는 통상을 위하여 한반도 해안에 접근한 유럽인들의 항해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참전한 사람들의 글, 19세기 전반 조선에서 활동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서를 엮은 『한국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1874) 등이 있었다. 한국에 와 보지 못한 그리피스에게 이 자료들이 얼마나 귀중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하멜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은 그가 한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술을 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었다.

서양인들이 생산한 자료 다음으로 그리피스는 17개 일본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는 『천황의 제국』 집필 때부터 활용한 『고사기』와 『일본서기』, 『일본외사』 외에도 대외관계사 자료 『善隣國寶記』(1470)와 백과사전 『和漢三才圖會』(1712)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임진왜란 관련 문헌 『朝鮮物語』(1847), 『繪本朝鮮征伐記』(1853), 『朝鮮征討始末記』(1854), 조일수호조규 전후 발간된 『朝鮮聞見錄』, (1875), 『朝鮮事情』(1875), 『朝鮮八道里程圖』(1882),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의 일기와 편지도 활용하였

다. 물론 그가 이 자료들을 다 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본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부분적으로 읽거나 번역본에 의지하였다. 정유재란을 다룬 『조선물어』는 1875~1876년 빈에서 출간된 독일어 번역본, 한국을 다녀간 일본인들의 글은 일본에서 발간되던 영자 신문에 실린 것을 참고하였다.³⁸⁾

그리피스가 참고한 문헌 중에는 중국 자료도 3종 있었다. 『後漢書』 『東夷傳』, 청조에서 만든 지도, 1866년 왕비 책봉을 위하여 한국에 왔던 괴령(魁齡)의 『東使紀事詩略』이 그것이다. 『동이전』은 중국에서 활동한 영국 선교사 와일리(Alexander Wylie, 1815~1887)에 의하여 1882년 번역되었고, 『은둔의 나라 한국』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참고문헌 목록에 첫 번째로 수록되었다. 『동사기사시략』은 1877년 주중프랑스공사관 통역관에 의하여 번역 출간되었으며, 한국의 주요 도로를 다룬 32장과 고종과 민비의 가례를 다룬 43장에서 소개되었다.³⁹⁾

75개 문헌에서 서양 자료 54종, 일본 자료 17종, 중국 자료 3종을 뺀 나머지는 하나의 한국 자료 『懲毖錄』이었다. 『징비록』은 17세기 중기 일본에 유입된 임진왜란 관계 기록 중 가장 중요한 문헌이었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일본과 명의 결전으로 보려 했던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국수주의적 학풍이 고조되던 19세기 중후반 다소 부정적인 논조로 계속 회자되었다.⁴⁰⁾ 그리피스는 『징비록』을 “임진왜란 당시 조선 국왕의 대신이었던 사람이 한국의 입장에서 쓴 임진왜란사”라고 소개하고 약간 도움을 받은 문헌으로 분류하였지만, 실제로 임진왜란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본인들이 읽기에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징비록』 활용은 책 실물을 확인하고 자서

38)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Hermit Nation*, p. xiii. 『조선물어』의 번역본인 『1597년 일본의 한국 원정(Der Feldzug der Japaner gegen Corea im Jahre 1597)』은 1876년 오스트리아의 동양학자 피츠마이어(August Pfizmaier, 1808~1887)에 의하여 출간되었다.

39) Alexander Wylie, “Ethnography of the After Han Dynasty”, *Revue d'Extrême-Orient* Vol. 1, Paris : Ernest Leroux, 1882, pp. 52~83; F. Scherzer, *Journal d'une Mission en Corée*, Paris : Ernest Leroux, 1877.

40) 김시덕, 『임진왜란의 기억: 19세기 전기에 일본에서 번각된 조·일 양국 임진왜란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8, 2012, 10~14쪽.

(自序)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데 그쳤다.⁴¹⁾

그리피스는 17개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문헌으로 분류하였다. 한국과의 관련성은 있으나 분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수와 판독이 어려운 자료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자료 『東國通鑑』이다.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를 다룬 이 역사서는 1667년 교토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의 역사서 중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한국을 이해하는 주요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초에 상업 출판된 대규모 백과사전 『화한삼재도회』가 “『동국통감』에 이르기를”이라는 구절 아래 단군 신화를 수록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국통감』의 영향은 1853년에 간행된 『회본조선정벌기』에도 나타났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소재로 삼았으면서도 서두에 한반도의 지리와 고대사를 충실히 기술하였으며, 특히 단군 신화를 필두로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를 수록하였다. 그 출처 역시 『동국통감』이었다.⁴²⁾

『화한삼재도회』와 『회본조선정벌기』는 그리피스가 많은 도움을 받은 문헌이었다. 즉, 그는 『화한삼재도회』를 통하여 『동국통감』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나 실물을 보지는 못했고, 따라서 그것을 “한국인들이 한문으로 쓴 역사서”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⁴³⁾ 그러나 『동국통감』에 실렸던 다양한 신화적 서술은 『화한삼재도회』와 『회본조선정벌기』를 거쳐 『은둔의 나라 한국』 34장 <전설과 민담>에 수록되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그는 신화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몰랐으나,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가 서양인으로서 아마도 처음으로 단군을 언급하였다는 데 있다.

신적 존재인 단군이 부분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문명을 가르쳤으나, 5,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글자를 읽고 쓰는 법, 의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봉건 중국

41)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p. viii & 145.

42) 김영주·이시준, 『에도 시대 출판물 속 단군 신화: 『화한삼재도회』와 『에혼조선정벌기』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3, 2016, 12~24쪽.

43)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xi.

의 정치 원칙들을 가르친 것은 기자였다.⁴⁴⁾

옛날 그 땅에는 군주도 없고 족장도 없었다. 한 신적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백두산 어느 박달나무 밑에 거처를 삼았다. 그 땅의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고 그를 단군(박달나무 왕), 그의 영토를 조선(고요한 아침)이라고 불렀다. 이 일은 당요(唐堯)의 치세(서기전 2356년)에 일어났다. 그는 평양을 도성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백악으로 천도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은 상 탕왕 8년(서기전 1317년) 아사달로 또 한 번 수도를 옮겼다. 그들은 1,000년 이상 조선을 다스렸으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 후 중국의 귀족이었던 기자가 그 나라를 점령하였다.⁴⁵⁾

인용문은 『은둔의 나라 한국』에 실린 단군 관계 기록의 전부로서 전자는 2장 〈고조선〉, 후자는 34장 〈전설과 민담〉의 일부이다. 그리피스가 단군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기자를 과장하였다고 비판한 선행 연구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⁴⁶⁾ 오히려 그는 중국 자료에 의지하여 기자만을 언급한 이전의 서구 저자들과 달리, 일본 자료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받아들여 단군을 기자 이전의 통치자로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 서술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수용되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였으나, 적어도 그는 일본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화 또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자료로 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그리피스가 참고문헌 목록에 올린 92개 자료를 대강 살펴보았다. 그는 도움을 받은 정도에 따라 이 자료들을 분류해 두기는 했으나 엄밀한 분류는 아니었다. 많은 도움을 받은 문헌으로 분류되었으나 두어 줄 정도 인용된 것도 적지 않고, 『동국통감』처럼 참고하지 않은 문헌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기여한 것도 있었다. 따라서 『은둔의 나라 한국』이 어떤 문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는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44)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p. 12~13.

45) *Ibid.*, p. 308.

46) 신형식, 앞의 글, 25쪽.

본문은 제1부 『고대사와 중세사』(22개 장, 177쪽), 제2부 『한국의 정치와 사회』(16개 장, 166쪽), 제3부 『근대사와 현대사』(10개 장, 96쪽)로 구성되었다. 『고대사와 중세사』는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조선 후기 양난과 하멜 일행의 이야기까지를 다루었으며, 『근대사와 현대사』는 천주교 전래부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제물포조약까지 다루었다.

[표-2] 『은둔국 한국』 목차

권	장	제목	권	장	제목
1	1	한반도	2	25	정당
	2	고조선		26	통치 조직 및 방식
	3	부여족과 그들의 이주		27	봉건제, 농노제, 사회
	4	삼한 또는 한국 남부		28	사회적인 삶-여성과 가족
	5	삼국 시대-백제		29	아이들의 삶
	6	삼국 시대-고구려		30	의식주
	7	삼국 시대-신라		31	상례와 장례
	8	일본과 한국		32	집 밖에서의 삶-특징과 이용
	9	고려 또는 통일된 한국		33	무속과 신화적 동물
	10	중국, 일본, 몽골		34	전설과 민담
	11	새로운 조선		35	속담과 격언
	12	일본의 침략을 이끈 사건들		36	한국의 호랑이
	13	침략-서울로 진격		37	종교
	14	북부 지방 원정		38	교육과 문화
	15	서울에서의 후퇴		39	기독교의 시작(1784~1794)
	16	군중 사제 세스페데스		40	박해와 순교(1801~1834)
	17	교토와 베이징의 외교		41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1835~1845)
	18	두 번째 침략		42	고립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다
	19	울산성 포위	3	43	프랑스인들의 원정
	20	전후의 변화		44	미국과 한국의 관계
	21	동아시아의 잇사갈		45	사체 절도를 위한 원정
	22	네덜란드인들의 유배 생활		46	우리와 이교도의 작은 전쟁

23	팔도	47	대(對)일본 무역항 개방
24	왕과 왕궁	48	조약 체결의 해

『고대사와 증세사』의 2~8장은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 9~10장은 고려를 다루었다. 그리피스도 이 부분을 집필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으나, 로스가 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資治通鑑』을 비롯한 중국 사료를 활용하여 집필되었으므로 한국보다 중국과 북방 민족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지만, 기자조선부터 조일수호조규까지의 한국사를 어떻게든 엮어 낸 첫 번째 문헌이었다. 특히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를 다룬 2~3장과 6장은 『한국의 역사』 없이는 쓰일 수 없었을 것이고, 왕건이 고구려 왕실의 후손이라는 내용(9장)도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었다.⁴⁷⁾ 그밖에 그는 와일리가 번역한 『후한서』 「동이전」을 활용하여 4장,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도움을 받아 8장 등을 집필하였다. 8장 〈일본과 한국〉은 그가 『고대사와 증세사』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다. 그는 이 장에서 일본과 한국이 고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는 그동안 서양인들이 남긴 한국 관련 기록에서 거의 언급된 적 없는 신선한 내용으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알고 있었던 서구 독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성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대사와 증세사』의 뒷부분인 11~22장은 조선의 건국부터 17세기 중반까지를 다루었다. 그리피스는 3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12개 장을 할애하였고, 12개 장 중 9개 장을 임진왜란에 할애하였다. 이는 그가 수집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 중에 임진왜란 관련 자료가 풍부하였음을 뜻한다. 자료와 본문을 비교해 본 결과 전사(前史)와 전쟁 초기에 해당하는 12~15장은 1880년 전후 애스턴이 일본아시아학회에서 발표한 「히데요시의 한국 침략(Hideyoshi's Invasion of Korea)」,⁴⁸⁾ 정유재란을 다룬 18~19장은 일본 문헌

47) John Ross, *History of Corea*, Paisley : J. and R. Parlane, 1879, p. 261. 이 책은 총 14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 5~6장, 9~14장에서 한국을 다루었다.

48) Asiatic Society of Japan,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VI, Part 1, (Reprint of the Original Edition of 1878), Tokyo : The Hakubunsha, 1888, pp. 227~245; Asiatic Society

『조선물어』의 독일어 번역본을 참고하였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서를 두루 이용하였다. 본문에서 프로이스(Luis Fróis, 1532~1597)의 보고서라고 소개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과 병자호란을 다룬 20~21장은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문서를 엮은 『한국교회사』 서론을, 22장 〈네덜란드인들의 유배 생활〉은 하멜 기록의 영역본을 두루 참고하였다. 『고대사와 중세사』 뒷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0장의 다음 대목이다.

임진왜란 후 부산은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쓰시마 다이묘의 부하들에 의하여 점령되었다. 양국의 모든 무역은 이 항구에서 실시되었다. 상품 교환이 원만히 이루어졌다. (중략) 일본인들이 1876년까지 부산을 소유한 것은 1592~1597년 전쟁에서 한국이 굴욕적으로 패배한 것을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끊임없이 건드린 사건이었다.⁴⁹⁾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전부터 1876년까지 부산을 소유하였다는 위 내용은 일본 자료가 아니라 놀랍게도 『한국교회사』 서론에서 가져온 것이었다.⁵⁰⁾ 19세기 전반 한국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썼을 것인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이 부산에 살면서 교역에 종사한다는 내용을 윤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한 대표적인 집단이었다. 한국의 문헌도 거의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 지도에 주석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며 일본인들이

of Japan,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IX, Yokohama : R. Meiklejohn & Company, 1881, pp. 87~93. 첫 번째 글은 1878년 발표되었으며 전사로부터 1593년 1월 심유경(沈惟敬)을 호위하러 간 일본군이 공격을 당한 사건까지, 두 번째 글은 1881년 발표되었으며 조·명 연합군의 평양 수복부터 4월 일본군의 후퇴까지를 다루었다.

49)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p. 149~150.

50)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Vol. 1, Paris : Librairie Victor Palmé, 1874, p. XIV. 번역본에는 “부산개는 대마도주의 권력 아래 있다. 일본인에 의한 부산개의 영유는 조선인의 패배를 말하는 영원한 증거이며 조선인의 국민적 자존심은 이로 말미암아 되게 상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인용문의 “1876년까지”는 그리피스가 쓴 것이다(샤를르·달레 저, 정기수 역, 『朝鮮教會史序論』, 탐구당, 1966, 34쪽).

세종 치세에 삼포로 이주해 온 것, 종종 5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된 것, 전후 다시 왜관이 설치된 것 등을 소개하였지만, 이 기사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선 정부가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만들어 낸 전설로 치부하였다.⁵¹⁾

『은둔의 나라 한국』의 제2부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한국을 다녀간 서양인들의 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피스는 한국에서 13년을 살다 간 하멜의 글부터 잠깐 다녀간 유럽인들의 글까지 다양한 기록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한국교회사』 서론이었다. 15개 장, 200여 쪽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관하여 거의 모든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서술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을 자세하게 다루기 위하여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을 그대로 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위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새 칭호에 알맞은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약사를 거느리고 나라의 모모한 대관과 자기들의 보호자와 시험관 따위들에게 인사하러 간다. (중략) 이 젊은 학사 또는 박사는 그 대부 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몇 걸음 물러나와 자리에 앉는다. 대부는 짐짓 점잔을 빼면서 그의 얼굴에 먼저 먹을 칠하고 다음에 분을 바른다.⁵²⁾

급제한 사람은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신세진 사람이든가 친척, 시관, 대작들을 찾아다니면서 축하를 받고 보은한다. (중략) 급제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크게 절을 하고 연회의 주최자의 몇 피트 뒤쪽에 자리를 잡는다. 주최

51) Ch. Dallet, op. cit., p. XIV. 그리피스는 이 내용을 『은둔의 나라 한국』에 실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소개한 한국 측 기록도 수록하였다(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150). 한편 서양인들의 한국 인식은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였다. 내한 프랑스 선교사 20명 중 가장 오랫동안 한국을 경험한 다블뤼(M. N. A. Daveluy, 1818~1866)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입국한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 쓴 서한(1846)과 그로부터 약 15년 후 쓴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그의 시선이 놀라울 만큼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 관해서는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52) 샤를르·탈레 저, 앞의 책, 122~123쪽.

자가 한껏 점잔을 빼면서 앞으로 나와 벼루에서 먹을 듬뿍 찍어 제물이 된 그 시생의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서는 먹이 마르기 전에 밀가루를 두텁게 쳐바른다.⁵³⁾

첫 번째 인용문은 『한국교회사』 서론, 두 번째는 『은둔의 나라 한국』 38장에 나타난 조선 시대 면신(免新)에 대한 묘사이다. 양자는 상당히 유사하며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다. 『한국교회사 서론』이 그의 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나, 그는 이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부정적인 한국관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재생산하게 되었다.

제3부 「근대사와 현대사」는 동시대에 발행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집필되었다. 그리피스는 천주교 관련 부분인 39~42장은 『한국교회사』, 43~46장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생산된 제너럴서먼 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관련 기록과 오페르트(Ernst J. Oppert, 1832~1903)의 항해기 외에도 신문과 외교 문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일수호조규, 조미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을 다룬 47~48장은 일본인들의 일기와 편지, 미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과 보고서, 외교 문서 등을 참고하였다. 이 장에서 그는 한국의 근대화가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그에 따라 한국에 무력을 쓴 모든 외부 세력-자국을 포함하여-을 비판하였다. 그가 비판하지 않은 유일한 외세는 일본이었다. 『천황의 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그는 일본이 한국을 개항시킨 것은 “두뇌의 승리”라고 평가하였다.⁵⁴⁾ 그러나 그가 일본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동의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정한과를 물리친 메이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한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음을 예상치 못했고, 러일전쟁 때까지도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게다가 그가 이 책을 끝냈을 당시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다.

『은둔의 나라 한국』은 1882년 10월 이전 서양과 일본, 중국, 한국에서 생

53) W. E. 그리피스 지음, 신복룡 역주,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439쪽.

54)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425.

산된 수십 종의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편찬물이었다. 최근 100년을 다룬 『근대사와 현대사』는 『한국교회사』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발행되던 일간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내용의 특성상 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글을 대거 인용해야 했으며, 하멜의 기록과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사』의 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대사와 중세사』는 『한국의 역사』, 『후한서』 『동이전』, 『고사기』와 『일본서기』, 임진왜란 관련 서양 문헌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리피스는 16세기 말 예수회 선교사들의 임진왜란 관련 기록(서양), 5세기 전반에 쓰인 『동이전』(중국), 8세기 초에 편찬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소환함으로써 각지에서 생산된 초창기 한국 관련 기록에 도달하였다. 그밖에도 9세기 아랍에서 쓰인 한국 관련 기록을 1장에서 소개하고 『동국통감』에 수록된 단군 신화 및 고대 신화까지 재인용하였으니,⁵⁵⁾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한국 관련 기록을 직간접적으로 망라한 셈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그리피스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그의 책 『은둔의 나라 한국』을 검토하였다. 그는 무역상의 후손으로 태어나 일찍부터 바깥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성장하였으며, 대학 시절에는 전직 일본 공사의 아들과 가깝게 지내는 한편 일본인 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을 배워 나갔다. 이러한 경험에 힘입어 일본 근대 교육 기관의 교사로 발탁된 그는 3년 반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공부하였고, 일본의 역사와 정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천황의 제국』을 마친 후 각지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은둔의 나라 한국』을 편찬함으로써,

55)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 2. 9세기 아랍에서 쓰인 한국 관련 기록은 코르다베(Ibn Khordadbeh, c.820~912)의 책에 수록된 신라 관련 기록을 가리킨다. 이는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의 중국 연구에 인용되었고, 그리피스는 리히트호펜의 저술을 인용한 제3의 문헌에서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882년 이전-서양인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었던 시대-에 생산된 한국 관계 기록을 집대성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피스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았으나 한국 역사서를 입수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다. 한국 자료는 한국이 서양인들에게 개방된 후에도 10여 년 후 한문을 읽을 줄 알았던 주한프랑스공사관 서기관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에 의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험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와 게일(James S. Gale, 1863~1937) 같은 학구적인 영미권 선교사들의 검토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은둔의 나라 한국』이 초창기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서양인들이 이후에 쓰인 어떤 책들보다 이 책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들 중 일부가 한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책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 참고문헌

- 김시덕, 『임진왜란의 기억: 19세기 전기에 일본에서 번각된 조·일 양국 임진왜란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28, 2012.
- 김영주·이시준, 『에도 시대 출판물 속 단군 신화: 『화한삼재도회』와 『에혼조선정벌기』를 중심으로』, 『외국 문학연구』 63, 2016.
- 샤를르·달레 저, 정기수 역, 『朝鮮敎會史序論』, 탐구당, 1966.
- 이영미, 『그리피스(1843~1928)의 한국 인식과 동아시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태진, 『근대 한국은 과연 '은둔국'이었던가?』, 『韓國史論』 41·42, 1999.
- 양상현·유영미 엮음,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눈빛, 2019.
- 정성화, 『서양의 한국: 이미지의 탄생과 변화』,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 조은영, 『미국 만국박람회에서의 일본: 일본 신화 만들기와 문화 정책』, 『미술편학보』 18, 2002.
-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 W. E. 그리피스 지음, 신복룡 역주,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 碓井知鶴子, 『Biography of Margaret C. Griffis: A Woman Teacher Employed by the Early Meiji Government』, 『比較教育学研究』 18, 1992.
- 藏原三雪, 『The Griffis' Journal of Tokyo Years (1873/4/1~1874/9/17)』, 『武藏丘短期大学紀要』 13, 2006.
- Asiatic Society of Japan,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IX, Yoko-hama: R. Meiklejohn & Company, 1881.
- _____,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VI, Part 1, (Reprint of the Original Edition of 1878), Tokyo: The Hakubunsha, 1888.
-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of Corée* Vol. 1, Paris: Librairie Victor Palmé, 1874.
- Ebenezer Mack Treman & Murray E. Poole, *The History of the Treman, Tremaine, Tru-man Family in America* Ithaca, New York: Press of the Ithaca Democrat, 1901.
- Edward R. Beauchamp, *An American Teacher in Early Meiji Japan*, Honolulu, Hawaii: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6.
- John Ross, *History of Corea*, Paisley: J. and R. Parlane, 1879.
- Robert A. Rosenstone, *Mirror in the Shrine: American Encounters with Meiji Japan*,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William Elliot Griffis, *China's Story in Myth, Legend, Art, and Annals*,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11.
- _____,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 _____, *The Mikado's Empire*, New York: Harper & Brothers, 1876.
- _____, *George Warne Labaw & John Hart, Class of 1869, Rutgers College, History to 1916*, Ithaca, New York: The Cayuga Press, 1916.

Compiling Records concerning Korea

— William E. Griffis (1843~1928) and *Corea, the Hermit Nation* —

Lee Yeong-Mi*

This paper reviews *Corea, the Hermit Nation* (1882), one of the most important Korea-related records written by Westerners. William E. Griffis (1843~1928), the author, was interested in Korea when he was a teacher in early Meiji Japan. After he came back to the United States, he began to study Korea and finished the book in October 1882. He wrote it based on scores of books, articles and reports he collected in the East and the West. Especially, he referred to data made in Japan more than anyone, from Japanese history books to writings written or translated by Westerners who had lived in Japan. Since he had never been to Korea, he largely consulted Western records based on experience. His favorite was the introduction of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1874). It contained a lot of information concerning Korea and its people although it did not describe them positively at all. It was necessary for him to referred to it.

Corea, the Hermit Nation, was a compilation of Korea-related records written by foreigners for hundreds of years, by an American deeply fascinated by Meiji Japan. It is not surprising that errors and rumors are found in the book. However, its authority had hardly been weakened even after those who travelled to Korea published more vivid and interesting books. It even affected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early-stage scholars of Korean studies. Maurice Courant (1865~1935) consulted it as well as Korean history books when he studied Korean history. Homer B. Hulbert (1863~1949) and James S. Gale (1863~1937) corresponded with him to discuss academic matters.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it was a bridge between Korea-related records before 1882 and early-stage Korean studies in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 William E. Griffis (1843~1928), *Corea, the Hermit Nation* (1882), Korea-related records before 1882, Meiji Japan,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1874), studying Korea by Westerners who lived in Korea